

ESG 제도가 점차 무역에 연계되고, 글로벌 투자자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법률적 규제가 아님에도 기업 경영에 있어 ESG의 실질적인 구속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 중 RE100은 재생에너지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이니셔티브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다국적 비영리단체인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가 연합해 출범시켰으며 에너지다소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해 재생에너지 '수요' 기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RE100의 범위는 운영경계 내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CDP 질문지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조직경계 외 밸류체인 공급망에 재생에너지 사용확대 등 ESG관련 관여활동 수행정책이나 내용 등을 질문하고 있으며 이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에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RE100을 가입하게 되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중간단계 최소 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결과를 매해 보고하고 검증받게 된다. 최근 고객사 등의 요구에 따른 아시아 지역 업체들의 가입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주 등에 비해 아시아 지역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방안이 부족하거나 그 비용이 크게 높아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24/7 CFE(24/7 Carbon Free Energy)는 일주일, 매일 24시간 내내 모든 소비 전력을 무탄소 전력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대체하고, 정책 설계 및 전력조달, 공급 등 전반적인 전력 그리드 혁신을 통해 전력시스템의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이니셔티브이다.

2021년 9월, 구글과 유엔 에너지(UN Energy)와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4ALL)의 협력 하 발족되었다.

24/7 CFE는 전력 공급기업, 전력시스템 운영 및 기술 솔루션기업이 주가 되어 그리드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무탄소 에너지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무탄소 에너지의 개념에 원전이나 그린수소 등이 포함되어 얼핏 RE100보다 달성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시간단위의 무탄소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단일 전력시장 내에서 완벽하게 매칭하기 위해서는 전력의 생산 및 이동, 소비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형태의 전력망 및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해당 이니셔티브를 주창한 구글은 2017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충족했으나 2030년까지 24/7 CFE를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24/7 CFE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개발 및 그리드 탈탄소화, 공공정책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RE100이나 CF100이냐는 대립관계라기 보다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을 보유하고 있다. RE100은 ‘수요’ 측면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기위한 움직임으로 결성되었고, 24/7 CFE는 특히 ‘공급’ 측면에서 전력망의 혁신과 에너지 공급정책의 변화를 통한 실시간 무탄소 에너지의 수요-공급의 효과적인 매칭을 강조해 그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뿐이다.

CF100이 무탄소에너지로 원전등을 포함한 것은 24/7의 달성에 있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고 추정된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중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써 더 현실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화석연료를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퇴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하는 것은 새로운 무역 질서 하 우리 에너지 시장의 개편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념적 이슈가 아닌 어디까지나 경제적 이슈이며,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수용도 수반되어야 하는 이슈라 판단된다.